참 신앙적 삶의 이중플레이

(민21:10~35)

21.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24.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신앙적 삶의 이중플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 신앙적 삶의 이중플레이'
'이중플레이'라는 말은 절대로 느낌이 좋지 않고 좋은 상황에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보여주는 대남정책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하고 개성공단의 개방을 선언하고 금강산관광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력도발을 감행하는데 이중플레이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각국 수뇌들과의 만남의 사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강경한 태도로 역사적 오류를 시인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산책을 하면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이중플레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더 이상 다르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선민의 삶이 제법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대로 정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참 신앙적 삶이 선민에게서 보일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중플레이 삶인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의 김정은의 이중플레이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 참 선민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중플레이는 선민의 마음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이중플레이면서도 사실은 이중플레이가 아닙니다. 선민이 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을 지향할 때 이중플레이가 되는데 선민은 한 가지 방향으로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 마음을 쏟고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과 하나님이 역

사하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중플레이라고 하는데, 이중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선민의 모습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선민이 마음을 쓰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 보이므로 선민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중플레이로 이루어지고 채워져 보인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읽은 부분에서 에돔을 우회해서 요단 동편의 제일 남쪽 끝으로 왔습니다. 밑에는 사해와 위에는 갈릴리 바다를 잇는 요단강 동편으로 왔는데, 요단강 동편에는 맨 아래 쪽으로 모압이 있고 그 위로 남아모리가 있고 그 위로 암몬이 있고 그 위로 북아모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위에 있는 남아모리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힘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모압과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암몬을 사이에 두고 아래로 남아모리와 위로 북아모리와의 전쟁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우물 파는 이야기와 아모리와의 전쟁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참 신앙적 삶이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이중플레이의 현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중플레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모습과 우리 마음의 방향은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들립니다. 같이 가야지 어떻게 다르게 가야할까요? 외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중플레이로 보여야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불뱀의 징계 이후에 놋뱀 사건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뜻하는 바가 '내가 뱀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뱀이 하는 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마음의 배를 이 땅에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이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의 배를 이 땅으로부터 불리려 했던 삶을 정확하게 뉘우친 것입니다. 이제 놋뱀을 보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벗어버리는데 이것이 번제의 정신입니다. 번제에서 '양이 죽는데 내가 죽는다.'고 믿는 이유는 '내가 그 동안 뱀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이 땅에 배를 붙이고 수평운동을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미래에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희망과 소망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가 바로 이중플레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부터 나오는 우물 사건을 봅니다. 16~17절에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고 하는데 이제까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으로부터 40년 광야생활 중에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물과 연관 되어서 이제까지 보여준 광야생활의 상황은 항상 백성들이 불평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무라시거나 징계하시면서 물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므리바의 물 사건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바위을 두 번 치고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선하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중플레이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놋 뱀 사건을 통해서 번제의 정신을 나름대로 체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생활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생각할 때에 뒤 이어 따라오는 사건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승천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다 받아들여야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 마음이 땅에 붙어서 배 부르려고 뱀의 흉내를 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아버지께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솔선해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중플레이가 되는 이유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뱀의 흉내를 중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이 육체가 마실 물 같은 것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나니 물 같은 것에는 상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물을 주신다고 솔선하시니 이스라엘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브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른 것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단맞으며 물을 얻어 마시다가, 물 같은 것은 필요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솔선하여 물을 주시자 노래 부르고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삶이고 번제의 정신을 생활화할 때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파십니다. 선민의 마음은 우물이 필요 없는 듯이 살면서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플레이가 전개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주 이상하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남쪽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에 모압은 힘이 다 빠져서 모압과는 싸울 필요가 없었고,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무찌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는 오늘에 이르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에서부

터 반복해서 말씀하신 진멸해야 될 가나안 일곱 족속의 하나였습니다. 신7:1, 출23:23, 33:2절에서도 이미 “멸절시키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주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상하게 에돔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평화적인 교섭을 하게 됩니다. 평화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고 아주 공손하게 교섭을 하지만, 에돔의 경우에서처럼 교섭은 결렬되고 아모리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맞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돔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전쟁에 응하면서 남아모리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순종하므로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않고 평화의 선언과 함께 외교적 교섭을 먼저 행했느냐는 것인데, 신20:10절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아모리를 향하여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모리를 진멸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명기 2장에서 아모리와의 싸움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신2:26절에서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라고 평화적인 교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30절에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라고 하십니다.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을 도발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선언한 평화가 깨어지도록 아모리 왕의 마음을 도발시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시는데 꼭 북한의 대남정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평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리를 진멸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화를 선언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올바른 것 같지 않잖아요? ‘평화를 선언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선민들에게는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이 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과 부딪히는 상황은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가나안 복지를 담아서 바라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아모리 족속은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리와 평화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가나안을 빼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나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한 아모리는 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로막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려면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서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빼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그 분이 나의 기업이 될 때에 이 땅에서 그에게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업인 하늘나라를 빼앗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선언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는 비전을 마음에 갖지 않는다면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장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것은 없고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모리를 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가나안을 마음에 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으신 열망이 있으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아모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아모리를 진멸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장갑으로 끼셔서 아모리를 진멸하시는 것이 이중플레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뱀에 물려서 뱀의 독에 중독된 상태로 마음이 이 세상에 배를 붙이고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고 마음 안에 세상 것을 담아두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가는 곳마다 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꿈꾸면 현실적으로 나의 모든 입사동기들이 적이 되고, 치고 올라오는 유능한 후배들이 적이 됩니다. 참 신앙인은 승진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번제의 정신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마음이 늘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르는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다 보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승진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승진하고 싶어 하는 모든 아모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의 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 나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중플레이로 봅니다. 나는 늘 사는 대로 살았는데 사장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나의 행동을 예쁘게 보십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예쁘게 본 것처럼 예쁘게 본 것입니다. 의도한 것도 아닌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있을 때에는 승진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척하더니 사장님께 잘 보여서 저렇게 특급승진을 하느냐며 이야기하는데 이중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눅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육체를 마음속에 담아서 사랑하고 있는데, 병이 걸린다든지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않고 끝까지 몸을 갖게 되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적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물과 음식과 연관되어서 보여준 행태가 바로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북의 김정은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자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세상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담고 있는 것에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처음에는 자기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평생 장로님으로 사시던 분이 아파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더니 찬송가와 성경책을 다 찢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들여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도 원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단 아모리를 진멸하시던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바울이 된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의 심령이 쪼개져버리고 맙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늘로 간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이중플레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쪼개고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통해 보인 진정한 신앙의 씨앗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플레이의 삶을 사는데 내가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삶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계신 것에 반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얻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얻느냐고 말하며 이중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계시기에 아모리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만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에게 평화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플레이의 삶이 내게 나타나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번제의 정신을 내 것으로 삼는 십자가 생활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서 이 세상에 적이 없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모습이 서로 달라 이중플레이로 보이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